

아버지의 역할수행이 청소년기 자녀의 정서지능과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Fathering Practice on Adolescents' Emotional Intelligence and Stress Coping Behaviors

명지대학교 아동학과
부 교수 김정민**
박사과정 김혜민
석사 김용주***

Dept. of Child Studies, Myongji Univ.
Associate Professor : Kim, Jung-Min
Doctoral Course : Kim, Hye-Min
Master : Kim, Yong-Ju

<Abstract>

The aim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fathering practice on adolescents' emotional intelligence and stress coping behaviors respectively. Participants were 654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male 330, female 324) in Seoul and Gyeonggi area. Questionnaires included fathering practice, emotional intelligence, and stress coping behaviors. Data were analyzed by SPSS WIN 12.0 for t-test, simple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middle school students perceived more fathering practice than high school students. Second, fathering practice(understanding, educating, supporting)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adolescents' emotional intelligence. Third, fathering practice(understanding, educating)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adolescents' active coping behaviors and social support seeking coping behaviors respectively. Fourth, adolescents' active coping behaviors and social support seeking coping behaviors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ing practice and adolescents' emotional intelligence.

▲주요어(Key Words) : 아버지 역할수행(fathering practice), 정서지능(emotional intelligence), 스트레스 대처행동(stress coping behaviors)

I. 서론

오늘날 저출산,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적 참여 증가 등의

급속한 변화 추세는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제 아버지는 더 이상 가족의 물질적 부양자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발달 및 양육 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생산적인 아버지'(generative fathering)로 인식되고 있다(정옥분 등, 2005; Hawkins & Dohlahite, 1997). 그러나 아버지의 역할수행 혹은 양육 참여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많지 않으며, 주로 성취 동기, 자기효능감,

* 석사학위논문 의 원자료를 일부 사용하였음.
** 주 저자 : 김정민 (E-mail : jmkim122@mju.ac.kr)
*** 교신저자 : 김용주 (E-mail : yong_81@hanmail.net)

사회적 유능감, 자아존중감, 학교 적응 등과의 관계를 살펴본 것들이 대부분이다(김경미, 2003; 김진 등, 1995; 김희화, 2005; 윤서영, 1998; 황순영 등, 2005; Eliason & Jenkins, 2003; Wulfsohn, 2000). 이들 연구들은 아버지가 가족 내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고 효과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거나 양육 참여도가 높을수록 자녀의 성취 동기, 자기효능감, 사회적 유능감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반면, 아버지의 역할수행과 자녀의 정서 발달에 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자녀의 정서 발달과 관련하여 부모의 양육태도 및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의 영향력은 입증되어 왔으나 거의 대부분 부모의 특정 역할을 각기 구분하여 살펴본 것들이 아니다(오남희, 2008; 유진희, 2006; Baker & Crnic, 2009; Borelli, 2008; Chan, Bowes & Wyver, 2009). 게다가 과거 아버지는 가족 부양의 책임과 사회적 역할이 강조되어 자녀의 정서 발달은 주양육자인 어머니의 몫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높았다. 그러나 오늘날의 아버지들은 과거에 비해 자녀들과 감정적으로 더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가진다(Daly, 1993). 이들은 모-자녀 간의 상호작용과는 다른 방식으로 자녀와 관계를 맺음으로써 자녀의 정서 발달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정서 발달의 개념은 매우 일반적이어서 정서인식, 정서표현, 정서조절 등 다양한 하위영역에 미치는 아버지 역할수행의 영향력을 구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아버지의 가족 내 역할수행이 자녀의 정서조절에는 영향을 미치는 반면, 정서표현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정서 발달의 다양한 영역들을 포함하는 정서지능 변인을 선정하고 아버지 역할수행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정서지능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평가하며,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표현하고, 조절할 뿐 아니라, 사회 적응적인 방식으로 활용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Salovey & Pizzaro, 2003). 이러한 정서지능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부모의 양육태도 및 부모-자녀 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며(류지연, 2008; 배문주, 2004; 안현지, 1999; 이은숙, 2002; Rosenblum, 2000; Sturge-Apple et al., 2008; Van der Merwe, 2006), 자녀의 발달 단계에 따라 영향을 받기 쉬운 것으로 가정하여 아버지의 역할수행과 관련이 있는 정서 발달 변인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청소년기는 급격한 감정의 변화를 경험하는 심리적 특성을 보이는 시기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자녀의 정서지능에 초점을 맞추었다.

한편, 아버지에게 요구되는 역할수행은 자녀가 성장해 감에 따라 차이를 보이게 된다(Canfield, 1995). 청소년기는 이전 아동기와 달리 급격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변화가 진행되는 시기로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 역시 크게 달라진다. 상대적으로 청소년기의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는 독립적이고, 대등하며, 양방향적인 성향을 나타낸다(Ashbourne, 2008; De Godey et al., 2009; Doyle et al., 2009; Steinberg, 1996). 더욱이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와 모에게 기대되는 역할은 각각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자녀의 성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Roest et al., 2010). 그러나 아버지의 역할수행 혹은 양육 참여에 관한 소수의 선행연구들은 거의 대부분 영·유아기 및 아동기 자녀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춘 것들로 아버지의 역할수행과 자녀의 자기능력지각, 인지능력, 적응력, 애착안정성 등의 관계를 다룬 것들이다(이영환, 2001; 한미자, 2003; Frances et al., 1998; Shannon et al., 2005; Sharon & Jay Belsky, 1996; Shears & Robinson,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역할수행이 청소년기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서지능에 주목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역할수행과 관련이 있는 또 다른 변인으로 청소년기 자녀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고려하였다. 스트레스 대처행동은 개인의 수용능력을 위협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내적·외적 요구들을 다루기 위한 모든 인지적·행동적 노력을 가리킨다(Lazarus & Folkman, 1984). 선행연구들은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부모 갈등, 사회적 지지 등 가족 기능 관련 요인들을 꼽고 있다(임주희·최연실, 2006; Frazier et al., 2000; Grych et al., 2004; Karlien et al., 2005; Olstad et al., 2001). 특히 가족 내에서 자녀들은 일찍이 부모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관찰하여 학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지금껏 이러한 모델링 효과는 어머니에 비해 자녀와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을 보내는 아버지의 경우 무시되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달라진 가족 구조와 가족 내에서의 아버지의 역할 변화를 고려할 때 아버지의 역할수행에 따라 자녀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가족 내 아버지의 역할수행이 높을수록 자녀의 스트레스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녀에게 좀 더 적응적인 방식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하도록 격려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한편,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대체적으로 남학생의 경우 공격적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하는 반면, 여학생의 경우 소극/회피적 대처행동과 사회지지추구적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함을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성차는 자녀의 성역할에 대한 부모의 태도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아버지의 역할수행이 자녀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윤정민·김정민, 2008; 이재연·김광용, 2007; 정현희, 2008; Dubow & Ullman, 1989).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아버지의 역할수행이 청소년기 자녀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매개 변인으로 가정하였다. 이는 앞서 언급한대로 아버지의 역할수행이 청소년기 자녀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이러한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적응적인 정서 수용, 표현 및 변화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심리사회적 적응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박진아·정문자, 2001; 현은강·이정현, 1999; Carson et al., 1992; Jorgenson & Dusek, 1990). 적절한 스트레스 대처행동은 부정적 감정을 완화시키고 나아가 행동문제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양현아·박영애, 2004; 이선희·하은혜, 2009), 이는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유형이 특정 정서 기능에 영향을 미쳐 나타나는 심리적 적응의 긍정적 결과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행동은 정서조절 기능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우울을 감소시킨다거나, 사회지지추구적 스트레스 대처행동은 정서표현 기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불안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종합하여 볼 때, 본 연구의 목적은 아버지의 역할수행과 청소년기 자녀의 정서지능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 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청소년기 자녀의 성별과 학년에 따른 아버지의 역할수행과 자녀의 정서지능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은 각각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아버지의 역할수행이 청소년기 자녀의 정서지능과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각각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아버지의 역할수행이 청소년기 자녀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와 경기도에 소재한 남녀 중학교 1학년생 307명과 고등학교 2학년생 347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질문지 중 누락 문항이 있는 질문지와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을 제외한 총 654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의 성별은 남학생이 330명(50.5%), 여학생이 324명(49.5%)이었으며, 학년은 중학생이 307명(46.9%), 고등학생이 347명(53.1%)이었다.

2. 연구도구

1) 아버지 역할수행 척도

청소년이 지각한 아버지 역할수행을 측정하기 위해 Canfield(1995)의 아버지 역할수행 척도(Fathering Practices Scale

: FPS)를 번안하여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을 한 조선휘(1998)의 척도를 수정·보완한 박순덕(2005)의 것을 사용하였다. 아버지 역할수행 척도는 자녀와의 대화(5문항), 자녀부양(6문항), 자녀이해(8문항), 자녀에 대한 애정표현(6문항), 자녀교육(5문항) 등 5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0개의 문항이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의 아버지 역할수행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95로 나타났다.

2) 정서지능 척도

청소년의 정서지능을 측정하기 위해 문용린(1996)이 제작한 청소년용 정서지능 척도를 사용하였다. 청소년용 정서지능 척도는 정서인식(8문항), 정서표현(7문항), 감정이입(7문항), 정서조절(15문항), 정서활용(10문항) 등 5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47개의 문항이다. 문항에 대한 채점 방식은 정서인식, 정서표현, 감정이입, 정서조절 영역에 해당하는 1-37번 문항은 3점 Likert척도로 되어 있으며, 정서활용 영역에 해당하는 38-47번 문항은 ①번은 2점, ②번은 1점으로 채점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정서표현 영역은 역채점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의 정서지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75로 나타났다.

3) 스트레스 대처행동 척도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민하영과 유안진(1998)이 개발한 일상적 스트레스 대처행동 척도를 박진아(2001)가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스트레스 대처행동 척도는 적극적 대처행동(5문항), 공격적 대처행동(5문항), 소극/회피적 대처행동(5문항), 사회지지추구적 대처행동(5문항) 등 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0개의 문항이다. 각 문항은 4점 Likert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64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조사를 하기에 앞서 2008년 9월 12일 중학교 1학년생 40명과 고등학교 2학년생 40명을 대상으로 문항 이해도와 소요 시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 조사 결과, 문항 이해의 어려움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예비 조사에 사용한 질문지를 그대로 본 조사에 시행하였다.

본 조사는 2008년 9월 22일부터 10월 6일까지 서울시와 경기도에 소재한 남녀 중학교 3개교와 고등학교 3개교의 총 76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질문지는 담임교사를 통하여 배부 및 회수되었고, 담임교사의 감독 하에 각 반

별로 실시되었다. 질문지 작성 시간은 약 20~30분이 소요되었다. 최종적으로, 불성실한 응답을 한 질문지와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을 제외한 총 654부가 결과 분석에 사용되었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계수, t검증, 단순회귀분석, 단계적(stepwise)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청소년기 자녀의 성별과 학년에 따른 아버지의 역할 수행과 자녀의 정서지능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차이

1) 청소년기 자녀의 성별에 따른 아버지의 역할수행과 자녀의 정서지능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차이

청소년기 자녀의 성별에 따른 아버지의 역할수행과 자녀의 정서지능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먼저 아버지의 역할수행의 경우, 전체 아버지의 역할수행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아버지의 역할수행의 하위영역 중 유일하게 자녀교육($t=2.11, 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아

버지의 역할수행 중 자녀교육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버지의 역할수행의 또 다른 하위영역인 자녀와의 대화, 자녀부양, 자녀이해, 자녀에 대한 애정표현에서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녀의 정서지능의 경우, 전체 정서지능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정서지능의 하위영역 중 정서표현($t=-3.43, p<.01$)과 감정이입($t=-2.75, p<.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정서표현과 감정이입을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서지능의 또 다른 하위영역인 정서인식, 정서조절, 정서활용에서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녀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경우, 전체 스트레스 대처행동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하위영역 중 공격적 대처행동($t=3.10, p<.01$)과 소극/회피적 대처행동($t=-3.61,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공격적 대처행동을 더 많이 사용하는 한편,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소극/회피적 대처행동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또 다른 하위영역인 적극적 대처행동과 사회지지추구적 대처행동에서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청소년기 자녀의 학년에 따른 아버지의 역할수행과 자녀의 정서지능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차이

청소년기 자녀의 학년에 따른 아버지의 역할수행과 자녀의

<표 1> 청소년기 자녀의 성별에 따른 아버지의 역할수행과 자녀의 정서지능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차이 (N=654)

구 분	남학생(n=330)	여학생(n=324)	t	
	M(SD)	M(SD)		
아버지의 역할수행	자녀와의 대화	17.19(4.50)	17.75(4.68)	-1.57
	자녀부양	21.93(4.46)	21.61(4.08)	.96
	자녀이해	25.66(5.98)	25.36(6.34)	.61
	자녀에 대한 애정표현	19.22(5.06)	19.55(5.57)	-.79
	자녀교육	13.72(4.00)	13.05(4.05)	2.11*
전 체	97.72(20.83)	97.33(21.54)	.23	
정서지능	정서인식	20.25(2.96)	20.00(2.80)	1.13
	정서표현	16.42(2.54)	17.07(2.26)	-3.43**
	감정이입	13.65(2.89)	14.23(2.56)	-2.75**
	정서조절	32.38(5.40)	32.93(5.49)	-1.30
	정서활용	14.68(2.15)	14.64(2.19)	.24
전 체	97.38(9.71)	98.86(9.99)	-1.93	
스트레스 대처행동	적극적	14.18(2.81)	13.76(2.81)	1.95
	공격적	11.82(3.21)	11.05(3.13)	3.10**
	소극/회피적	10.71(2.81)	11.48(2.62)	-3.61***
	사회지지추구적	10.58(2.95)	10.56(2.41)	.05
	전 체	47.29(8.19)	46.85(6.31)	.77

* $p<.05$, ** $p<.01$, *** $p<.001$

<표 2> 청소년기 자녀의 학년에 따른 아버지의 역할수행과 자녀의 정서지능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차이 (N=654)

구 분	중학생(n=307)	고등학생(n=347)	t	
	M(SD)	M(SD)		
아버지의 역할수행	자녀와의 대화	18.18(4.42)	16.83(4.67)	3.79***
	자녀부양	22.22(4.12)	21.37(4.37)	2.55*
	자녀이해	26.14(6.06)	24.96(6.20)	2.45*
	자녀에 대한 애정표현	19.98(5.11)	18.86(5.45)	2.70**
	자녀교육	14.07(4.07)	12.78(3.91)	4.15***
전 체	100.60(20.32)	94.80(21.56)	3.52***	
정서지능	정서인식	19.99(3.00)	20.24(2.78)	-1.13
	정서표현	16.88(2.39)	16.63(2.44)	1.32
	감정이입	14.07(2.75)	13.81(2.73)	1.22
	정서조절	32.41(5.52)	32.87(5.39)	-1.07
	정서활용	15.02(2.23)	14.33(2.06)	4.12***
전 체	98.37(10.38)	97.88(9.39)	.64	
스트레스 대처행동	적극적	13.57(2.84)	14.33(2.75)	-3.50**
	공격적	11.47(3.24)	11.41(3.15)	.26
	소극/회피적	11.18(2.81)	11.01(2.68)	.79
	사회지지추구적	10.66(2.76)	10.49(2.64)	.84
	전 체	46.88(7.63)	47.23(7.03)	-.61

*p<.05, **p<.01, ***p<.001

정서지능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먼저 아버지의 역할수행의 경우, 전체 아버지의 역할수행(t=3.52, p<.001)은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전체 아버지의 역할수행은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아버지의 역할수행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자녀와의 대화(t=3.79, p<.001), 자녀부양(t=2.55, p<.05), 자녀이해(t=2.45, p<.05), 자녀에 대한 애정표현(t=2.70, p<.01), 자녀교육(t=4.15, p<.001) 등 모든 하위영역에서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자녀와의 대화, 자녀부양, 자녀이해, 자녀에 대한 애정표현, 자녀교육을 모두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정서지능의 경우, 전체 정서지능은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정서지능의 하위영역 중 유일하게 정서활용(t=4.12,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정서활용을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서지능의 또 다른 하위영역인 정서인식, 정서표현, 감정이입, 정서조절에서는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녀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경우, 전체 스트레스 대처행동은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하위영역 중 유일하게 적극적 대처행동(t=-3.50, p<.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적극적 대처행동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또 다른 하위영역인 공격적 대처

행동, 소극/회피적 대처행동, 사회지지추구적 대처행동에서는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아버지의 역할수행이 청소년기 자녀의 정서지능과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력

1) 아버지의 역할수행이 청소년기 자녀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력

아버지의 역할수행이 청소년기 자녀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Durbin-Watson 검증 결과, D-W 계수가 1.81~1.98로 2에 근접하게 나타나 잔차항 간의 상관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공차한계가 .58~1.0으로 .1이상이고 VIF값이 1.00~1.73으로 모두 10이하이므로 각 변인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정서지능을 종속변인으로, 아버지의 역할수행의 하위영역들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한 결과, 자녀이해(β=.26)와 자녀부양(β=.10)이 높을수록 정서지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지능에 대한 자녀이해의 설명력은 11%였다(F=76.22, p<.001).

정서지능의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정서인식은 자녀부양(β=.11)과 자녀교육(β=.10)이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인식에 대한 자녀부양과 자녀교육의 설명력은 각각 3%(F=19.44, p<.001)와 1%(F=11.95, p<.001)였다. 감정이입은 자녀이해(β=.23)가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정이입에 대한 자녀이해의 설명력은 5%였다(F=36.39, p<.001).

<표 3> 아버지의 역할수행이 청소년기 자녀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력

(N=654)

종속변수	독립변인	B	β	R ²	ΔR^2	F
정서지능(전체)	자녀이해	.34	.26***	.11		76.22***
	자녀부양	.24	.10*	.11	.01	40.46***
정서인식	자녀부양	.08	.11*	.03		19.44***
	자녀교육	.07	.10*	.04	.01	11.95***
감정이입	자녀이해	.10	.23***	.05		36.39***
정서조절	자녀이해	.28	.28***	.12		91.61***
	자녀교육	.18	.13*	.13	.01	49.18***
정서활용	자녀교육	-.14	-.29***	.07		50.42***

*p<.05, ***p<.001

<표 4> 아버지의 역할수행이 청소년기 자녀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력

(N=654)

종속변수	독립변인	B	β	R ²	ΔR^2	F
적극적 대처행동	자녀이해	.11	.23***	.12		90.42***
	자녀교육	.12	.17**	.14	.02	50.69***
사회지지추구적 대처행동	자녀교육	.19	.28***	.15		118.81***
	자녀이해	.07	.15**	.16	.01	64.27***

p<.01, *p<.001

정서조절은 자녀이해($\beta=.28$)와 자녀교육($\beta=.13$)이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조절에 대한 자녀이해와 자녀교육 각각의 설명력은 12%($F=91.61$, $p<.001$)와 1%($F=49.18$, $p<.001$)였다. 마지막으로, 정서활용은 자녀교육($\beta=-.27$)이 낮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활용에 대한 자녀교육의 설명력은 7%였다($F=50.42$, $p<.001$).

2) 아버지의 역할수행이 청소년기 자녀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력

아버지의 역할수행이 청소년기 자녀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Durbin-Watson 검증 결과, D-W계수가 1.84~1.95로 2에 근접하게 나타나 잔차항 간의 상관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공차한계가 .48로 .1이상이고 VIF값이 2.10으로 10이하이므로 각 변인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각 하위영역을 종속변인으로, 아버지의 역할수행의 하위영역들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한 결과, 자녀이해($\beta=.23$)와 자녀교육($\beta=.17$)이 높을수록 적극적 대처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 대처행동에 대한 자녀이해와 자녀교육의 설명력은 각각 12%($F=90.42$, $p<.001$)와 2%($F=50.69$, $p<.001$)였다. 또한 자녀교육($\beta=.28$)과 자녀이해($\beta=.15$)가 높을수록 사회지지추구적 대처행동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지지추구적 대처행동에 대한 자녀교육과 자녀이해의 설명력은 각각 15%($F=118.81$, $p<.001$)와 1%($F=64.27$, $p<.001$)였다.

3) 아버지의 역할수행이 청소년기 자녀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매개효과

아버지의 역할수행이 청소년기 자녀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세 단계 접근 모델에 근거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Durbin-Watson 검증 결과, D-W계수가 1.83~1.94로 2에 근접하게 나타나 잔차항 간의 상관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공차한계가 .88로 .1이상이고, VIF의 값이 1.00~1.14로 모두 10이하이므로 다중공선성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한지 살펴보았으며, 두 번째 단계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한지 살펴보았다. 마지막 단계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을 새로운 독립변인으로 동시에 투입하여 매개변인의 효과를 통제된 상태에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의 유의성이 감소하거나 사라지는 동시에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1) 아버지의 역할수행이 청소년기 자녀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적극적 대처행동의 매개효과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독립변인인 아버지의 역할수행이 매개변인인 적극적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고($\beta=.35$, $p<.001$), 독립변인인 아버지의 역할수행이 종속변인인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하였다($\beta=.32$, $p<.001$). 또한

<표 5> 아버지의 역할수행이 청소년기 자녀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적극적 대처행동의 매개효과 (N=654)

		β	R ²	F
정서 지능	1 (독립변수, 매개변수) 아버지의 역할수행→적극적 대처행동	.35***	.12	89.91***
	2 (독립변수, 종속변수) 아버지의 역할수행→정서지능	.32***	.10	75.36***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3 1) 아버지의 역할수행→정서지능	.19***	.21	169.66***
	2) 적극적 대처행동 →정서지능	.39***	.24	26.01***

***p<.001

<표 6> 아버지의 역할수행이 청소년기 자녀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지지추구적 대처행동의 매개효과 (N=654)

		β	R ²	F
정서 지능	1 (독립변수, 매개변수) 아버지의 역할수행→사회지지추구적 대처행동	.37***	.13	101.29***
	2 (독립변수, 종속변수) 아버지의 역할수행→정서지능	.32***	.10	75.36***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3 1) 아버지의 역할수행→정서지능	.24***	.10	75.50***
	2) 사회지지추구적 대처행동 →정서지능	.24***	.149	36.81***

***p<.001

마지막 단계에서 매개변인인 적극적 대처행동이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고($\beta=.39, p<.001$), 아버지의 역할수행이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하였다($\beta=.19, p<.001$). 그러므로 적극적 대처행동은 아버지의 역할수행이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 매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2) 아버지의 역할수행이 청소년기 자녀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지지추구적 대처행동의 매개효과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독립변인인 아버지의 역할수행이 매개변인인 사회지지추구적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고($\beta=.37, p<.001$), 독립변인인 아버지의 역할수행이 종속변인인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하였다($\beta=.32, p<.001$). 또한 마지막 단계에서 매개변인인 사회지지추구적 대처행동이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고($\beta=.24, p<.001$), 아버지의 역할수행이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하였다($\beta=.24, p<.001$). 그러므로 사회지지추구적 대처행동은 아버지의 역할수행이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 매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버지의 역할수행이 청소년기 자녀의 정서지능과 스트레스 대처행동 각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나아가 아버지의 역할수행이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

구의 주요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기 자녀의 성별에 따라 아버지의 역할수행, 자녀의 정서지능, 스트레스 대처행동은 각각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버지의 역할수행은 자녀교육을 제외하고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자녀교육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녀교육에 대한 아버지의 역할수행을 높게 지각하였다. 이는 선행연구 결과(박순덕, 2005; Harris & Morgan, 1991)와 유사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자녀의 성에 따라 아버지의 역할수행은 다르게 지각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단,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아버지의 자녀교육 참여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일부 성역할 학습(Lamb, 1995) 등 부자간 상호작용에 대한 기대에 따른 것일 수 있다. 한편, 정서지능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정서표현과 감정이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것이다(강민수, 2001; Boncher, 2003; Williams & Daley, 2009). 이러한 결과는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사회적 학습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일에 강화를 받는 경향이 높은 데 기인하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감정표현과 맞물려 여성의 관계지향적 성향은 상대방의 감정에 대한 공감과 관련이 있는 감정이입의 경험을 하도록 이끄는 것처럼 보인다(Houtmeyers, 2000). 스트레스 대처행동에서도 성차가 나타났는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공격적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하는 반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소극/회피적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 역시 선행연구들과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박진아·정문자, 2001; 윤정민·김정민, 2008, Ashton & Fuehrer, 1993; Kort & Lisa,

2009; Seffge-Krenke, 1995), 공격 성향의 성차 혹은 공격적 반응에 대한 사회적 피드백의 성차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있다.

둘째, 청소년기 자녀의 학년에 따라 아버지의 역할수행, 자녀의 정서지능, 스트레스 대처행동은 각각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역할수행은 전체 점수가 하위영역 모두에서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등학생 자녀에 비해 중학생 자녀에게 가족 내에서 아버지가 자녀부양, 자녀와의 대화, 자녀에 대한 애정표현, 자녀교육에 관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자녀 관계가 자녀의 발달단계(청소년기 초기, 청소년기 후기)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가리킨다. 이러한 학년에 따른 차이는 자녀의 연령 증가에 따른 독립심 및 자율성의 증가, 세대 간 문화 격차, 부-자녀 간 상호작용 패턴의 변화, 학업 부담의 증가로 인한 부-자녀 간 대면 시간의 부족 등이 그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서지능의 경우 학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정서지능이 세부 발달 단계에 따라 민감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아버지의 역할수행은 청소년기 자녀의 정서지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역할수행은 정서지능의 하위영역 중 감정표현을 제외한 정서인식, 감정입, 정서조절, 정서활용에 모두 영향을 미쳤다. 아버지의 역할수행이 청소년기 자녀의 감정표현과 무관한 것으로 드러난 것은 아마도 사회적 학습의 영향으로 아버지 스스로가 자녀에게 감정의 표현을 격려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가족 내 아버지의 역할수행이 청소년기 자녀의 정서 발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침이 입증되었다.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역할수행 가운데 자녀의 정서지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자녀이해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자녀이해는 특히 자녀의 정서조절과 감정입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적절한 기대를 하고, 자율성을 부여하며, 자녀의 특성과 필요, 어려움 등을 이해하고 격려하는 것이 자녀로 하여금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조절할 뿐 아니라, 타인의 관점에서 타인의 감정을 자신의 것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아버지의 역할수행의 또다른 하위영역인 자녀교육은 정서조절과 정서활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의 성장을 위한 아버지의 지도 및 교육 참여가 자녀로 하여금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특정 상황에서 목표를 성취하는 데 유의한 방향으로 감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침을 가리킨다. 이는 정서지능과 관련된 일부 기술들이 교육과 훈련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는 전제와 일치하는 것이다(Graczyk et al., 2000).

넷째, 아버지의 역할수행은 청소년기 자녀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흥미롭게

도 아버지의 역할수행은 스트레스 대처행동 가운데 적응적 유형인 적극적 대처행동과 사회적지지추구적 대처행동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다른 부적응적 유형인 공격적 대처행동이나 소극/회피적 대처행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버지의 역할수행 가운데 자녀이해와 자녀교육이 적극적 대처행동과 사회적지지추구적 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나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이해 및 교육에의 적극적 참여가 청소년기 자녀로 하여금 보다 적응적인 스트레스 대처행동 기술들을 습득하도록 하는 데 효과적임이 밝혀졌다. 이는 아버지가 자녀의 문제를 이해함과 동시에 자녀 지도 및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자녀로 하여금 문제 직면, 해결방안 모색 및 실행 등의 적극적 대처행동 혹은 타인의 지지와 도움을 요청하는 사회적지지추구적 대처행동을 형성하도록 이끄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적응적 스트레스 대처행동들은 아버지가 자녀의 문제해결을 돕는 적극적인 역할수행의 과정에서 자녀가 직·간접적으로 학습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가정은 아버지의 역할수행과 부적응적 대처행동 간의 낮은 관련성에 의해서도 지지된다.

다섯째, 아버지의 역할수행이 청소년기 자녀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녀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기 자녀의 적극적 대처행동과 사회적지지추구적 대처행동은 아버지의 역할수행이 자녀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각각 부분적인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역할수행이 청소년기 자녀의 정서지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매개변인인 적극적 대처행동과 사회적지지추구적 대처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가리킨다. 즉, 아버지의 역할수행 변인 외에 청소년기 자녀의 적극적 대처행동과 사회적지지추구적 대처행동을 통해 정서지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적절한 아버지의 역할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청소년기 자녀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다루는 사회적 기술 및 문제해결 훈련을 통해 정서지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종합하면,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의 역할수행에 관한 연구들은 소수에 불과한 데다 거의 대부분 성취 동기, 자기효능감, 사회적 유능감, 자아존중감 등과의 관계에 대한 것으로 자녀의 정서적 특성과의 연관성을 살펴본 것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본 연구는 아버지의 역할수행이 청소년기 자녀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었을 뿐 아니라 아버지의 역할수행과 자녀의 적응적 스트레스 대처행동 유형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아버지의 역할수행이 자녀의 심리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입증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아버지의 역할수행이 자녀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매개효과를 밝힘으로써 한부모 가정 혹은 아버지의 적절한 역할수행을 기대하기 힘든 경우 적극적 대처행동 및 사회지지추구적 대처행동 훈련을 통해 정서기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는 첫째, 영아기에서 청소년기에 이르는 다양한 발달 단계별로 아버지의 역할수행이 자녀의 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부와 동거하지 않은 가정을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이혼 가정, 기러기 부모 가정 등을 포함한 비교 연구 또한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강민수(2001). 어머니와 자녀의 정서기능 관계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경미(2003). 청소년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자기 효능감과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진 · 이신숙 · 신효식(1995). 아버지의 역할수행과 아동의 성취동기에 관한연구. *한국가정교육학회지*, 7(1), 47-55.

김희화(2005). 아버지의 양육참여 실태 및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아버지 양육참여의 영향. *아동학회지*, 26(5), 311-330.

류지연(2008).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개념이 정서기능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용린(1996). 한국 학생들의 정서기능측정연구: 새로운 지능의 개념, 감성지능. *Petter Salovey* 교수 초청강연 자료집. 서울대학교 연구소.

민하영 · 유안진(1998).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아동의 대처행동 척도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6(7), 83-96.

박순덕(2005). 아버지에 대한 역할기대 및 역할수행 간 차이와 청소년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진아 · 정문자(2001).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행동문제간의 관계. *한국아동학회지*, 22(3), 107-122.

배문주(2004). 부모의 양육태도 및 양육태도 일치에 따른 유아의 정서기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안현지(1999). 부모의 양육태도와 정서 기능의 관계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현아 · 박영애(2004).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방식 및 스트레스대처행동과 아동의 행동문제와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 13(6), 847-860.

오남희(2008). 부와 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진희(2006). 부모역할이 유아의 정서능력과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서영(1998). 아버지의 역할수행과 아동의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정민 · 김정민(2008). 아동의 완벽주의가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20(3), 863-883.

이선희 · 하은혜(2009). 아동이 지각한 부모갈등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능력의 매개효과.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2(3), 83-96.

이영환(2001). 생산적인 아버지노릇과 유아의 애착안정성의 발달적 결과. *아동학회지*, 22(2), 65-76.

이은숙(2002). 부모양육태도, 형제관계 및 정서기능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재연 · 김광웅(2007). 아동의 완벽주의 성향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분노표현과의 관계.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0(2), 17-31.

임주희 · 최연실(2006).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미치는 부모갈등, 부모관련 스트레스,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영향. *아동학회지*, 27(4), 233-246.

정옥분 · 정순화 · 홍계옥(2005). 결혼과 가족의 이해. 시그마프레스.

정현희(2008). 성별에 따른 아동의 기질과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관계. *재활심리연구*, 15(2), 19-36.

조선화(1998). 아버지 만족감 및 스트레스와 아버지 역할수행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한미자(2003).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아동의 자기능력지각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현은강 · 이정현(1999).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사회적 적응 및 행동문제. *대한가정학회지*, 37(1), 167-179.

황순영 · 정영숙 · 우수경(2005).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역할만족도 및 유아의 사회적 능력. *한국생활과학회지*, 14(4), 521-529.

Ashboume, L. M.(2008). *A grounded theory exploration of the experience of time in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s*. University of Guelph(Canada), Ph.D.

Ashton, W. A., & Fuehrer, A.(1993). Effects of gender and gender role indentification of participant and type of social support resource on support seeking. *Sex Role*, 28(7/8), 461-476.

Baker, J. K., & Crnic, K. A.(2009). Thinking about feelings: Emotion focus in the parenting of children with early developmental risk.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Research*, 53(5), 450-462.

- Borelli, J. L.(2008). *Emotional reactivity and children's representational models of attachment relationships*. Yale University, Ph.D.
- Boncher, M. K.(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styles and emotional intelligence*. N.Y. University, Ph.D.
- Canfield, K. R.(1995). *Effective fathering practices fathering satisfaction related to a father's life course*. Kansas State University Dissertation.
- Carson, D. K., Swanson, D. M., Cooney, M. H., Gillum, B. J., & Cunningham, D.(1992). Stress and coping as predictor of young children's development and psychosocial adjustment. *Child Study Journal*, 22, 273-302.
- Chan, S. M., Bowes, J., & Wyver, S.(2009). Parenting style as a context for emotion socialization.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20(4), 631-656.
- Daly, K.(1993). Reshaping fatherhood : Finding the models. *Journal of Family Issues*, 14(4), 510-530.
- De Goede, I. A., Branje, S. T., & Meeus, W. J.(2009). Developmental changes in adolescents' perceptions of relationships with their par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8(1), 75-88.
- Doyle, A. B., Lawford, H., & Markiewicz, D.(2009). Attachment style with mother, father, best friend, and romantic partner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9(4), 690-714.
- Dubow, E. F., & Ullman, D. G.(1989). Assessing social suppor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survey of children's social support. *Journal of Child Clinical Psychology*, 18, 52-64.
- Eliason, C., & Jenkins, L.(2003). *A practical guide to early childhood curriculum(7th edition)*. New Jersey: Upper saddle river.
- Frances, K., Grossman, W. S. & Pollack, E. G.(1998). Fathers and children: Predicting the quality and quantity of father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4(1), 82-91.
- Frazier, P. A., Tix, A. P., Klein, C. D., & Arkian, N. J.(2000). Testing theoretical models of relations between social support, coping, and adjustment to stressful life event. *Journal of Social Clinical Psychology*, 19, 314-335.
- Graczyk, P. A., Weikssberg, R. P., Payton, J. W., Elias, M. J., Greenberg, M. T., & Zins, J. E.(2000). Criteria for evaluating the quality of school-based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programs. In R. Bar-On & J. D. A. Parker (Eds.), *Handbook of emotional intelligence*(pp. 391-410). San Francisco: Jossey-Bass.
- Grych, J. H., Raynor, S. R., & Fosco, G. M.(2004). Family processes that shape the impact of interparental conflict on adolescent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6(3), 649-666.
- Harris, K. M., & Morgan, S. P.(1991). Fathers, sons, daughters: Differential paternal involvement in parenting.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8(1), 47-53.
- Hawkins, A. J. & Dollahite, D. C.(1997). *Beyond the role in Adequacy perspective of fathering: Beyond deficit perspectives*(pp. 3~16). Thousand Oakes, C.A.: Sage. Publication, Inc
- Houtmeyers, K. A.(2000). *Attachment relationships and emotional intelligence in preschoolers*. University of Windsor(Canada), Ph.D.
- Jorgenson, R. S., & Dusek, J. B.(1990). Adolescent adjustment and coping strategies. *Journal of Personality*, 58, 503-513.
- Karliem, M. C., Catharina, A. H., Gieta, P., Johan, A., Ruud, B. M., & Johan, O.(2005). Gender differences in the relation between social support problem in parent-offspring communication, and depression and anxiety. *Social Science & Medicine*, 60, 2549-2559.
- Kort, B., & Lisa A.(2009). Coping styles and sex differences in depressive symptoms and delinquent behavior.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8(1), 122-136.
- Lamb, M.(1995). The changing roles of fathers. In J. L. Shapiro, M. J. Diamond, & M. Greeberg(Eds.), *Becoming a father: Contemporary, social, development, and clinical perspectives*(pp. 18~35). N.Y.: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Lazarus, R. S., & Folkman, S.(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Y.: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Olstad, R., Sexton, H., & Sogaard, A. J.(2001). The Finnmark Study. A prospective population study of the social support buffer hypothesis, specific stressors and mental distress. *Social Psychiatry & Psychiatric Epidemiology*, 36(12), 582-589.
- Roset, A. C., Dubas, J. S., & Gerris, J. M.(2010). Value transmissions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Gender and developmental phase as transmission belts. *Journal of Adolescence*, 33(1), 21-31.
- Rosenblum, K. L.(2000). *Communicating feelings: An examination of the processes linking mothers' representa-*

tions of their 7-month-old infants to early emotional development. The University of Michigan, Ph.D.

- Salovey, P., & Pizzaro, D. A.(2003). The value of emotional intelligence. In R. J. Sternberg, J. Lautrey, & T. I. Lubart (Eds.), *Models of intelligence: International perspectives*(pp. 263-278).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Seiffge-Krenke, I.(1995). *Stress, coping, and relationship in adolescence*.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Shannon, J. D., Tamis-Lemonda, C. S., & Margolin, A.(2005). Father involvement in infancy: Influences of past and current relationships. *Infancy, 8*(1), 21-41.
- Sharon, W., & Jay Belsky, K. C.(1996). The determinants of fathering during the child's second and third years of life: A developmental 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8*(3), 679-692.
- Shears, J., & Robinson, J.(2005). Fathering attitudes and practices: Influences on children's development. *Child Care in Practice, 11*(1), 63-79.
- Steinberg, L.(1996). *Adolescence*(4th ed.). N.Y.: McGraw-Hill.
- Sturge-Apple, M. L., Davies, P. T., & Winter, M. A. (2008). Interparental conflict and children's school adjustment: The explanatory role of children's internal representations of interparental and parent-child relationship. *Development Psychology, 44*(6), 1678-1690.
- Vna der Merwe, K. M.(2006). *The correlation between parental style of the parent and the emotional intelligence of the child in the foundation phase*. University of South Africa.
- Williams, C., Daley, D., Burnside, E. & Hammond-Rowley, S.(2009). Measuring emotional intelligence in pre-adolescenc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7*(4), 316-320.
- Wulfsohn, S. M.(2000). *Children's adjustment to first grade: Contributions of children's temperament, positive mothering, and positive fathering*. The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Ph.D.

□ 접수일 : 2009년 11월 25일

□ 심사일 : 2010년 01월 30일

□ 심사완료일 : 2010년 04월 01일